

7 ITF,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

➔ 미국 정보통신혁신재단(ITIF)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현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 유지에 유리하다고 분석한 보고서*를 발표('26.5)
 * US Technology Companies Should Keep Operating in China

- (개요)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성과를 개괄하고, 중국 현지 사업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여러모로 기여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,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
 - 미국 내 다수의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철수를 압박
 - 더욱이 중국의 강제 노동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(De-coupling)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황
 - 그러나 ITIF는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
 - ITIF는 기업들에 대한 중국 시장 철수 요구는 지나친 대응이며, 미국 정부가 중국 현지에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공격하거나 철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
- (중국 내 미국 기업들의 성과) 미국 경제분석국(BEA)에 따르면, '23년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70%(4,410억 달러)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
 - ※ BEA는 자산·매출·순이익 중 하나가 2,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기업 중 중국 현지에 관계회사를 둔 기업 1,950개와 홍콩에 관계회사를 둔 기업 921개의 데이터를 분석

〈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성과 요약 〉

구분	주요 내용
매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EA에 따르면, '23년 기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은 6,4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8%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은 '21년 6,680억 달러('23년 기준 7,420억 달러에 해당)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 - 제조업의 비중이 55%에 달해 지난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- 중국 내 미국 기업이 공급한 제품·서비스의 약 70%(4,410억 달러)가 중국 현지 시장에 공급되었고, 약 10%(620억 달러)는 미국 시장에, 21%(약 1,370억 달러)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공급 • 금융 리서치회사 칼크벤치(Calcbench)에 따르면, '24년 중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고한 미국 상장기업 173곳의 매출 총액은 약 3,070억 달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들이 중국 내 전체 매출의 61%를 구성하고 있으며, 특히 애플이 22%를 차지



구분	주요 내용
자본 지출 및 연구개발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4년부터 '2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자본 지출 (CAPEX) 규모는 대략 110억~140억 달러 사이에서 변동 •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 투자는 '14년 30억 달러에서 '23년에는 약 70억 달러에 육박해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내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 - 그러나 중국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는 유럽, 일본, 한국 등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
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3년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관계회사를 통해 120만 명 이상을 고용했고, 이 중 52%가 제조업 부문에 종사 • '16년부터 '23년까지 중국 내 관계회사들의 고용은 '21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는데, 특히 '18년과 '19년 사이에는 미-중 무역 긴장 고조, 중국 기업 제재, 미국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압력 증가 속에서 고용이 25%나 급감 •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(AmCham China)에 따르면, '26년 현재 경영진의 4분 3 이상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회원사는 전체의 84%

-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둔 매출은 미국 기업이 없었다면 중국 기업의 몫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현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

● (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이점)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여러 이점을 제공

- 먼저,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관계회사가 생산한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판매 되고 있으나 그 수익과 시장 점유율은 미국 기업에 되돌아가므로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
- 또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거둔 매출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 리더십을 유지할 뿐만 수익 중 일부를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, 실제로 중국 내 매출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제시
- 일각의 주장대로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로 인해 기업 본사가 위치한 국가 즉, 중국이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, 중국에서의 기술 역량 및 혁신 성과가 다시 미국으로 전이되는 '역기술유출(reverse technology spillover)'도 가능
- 더욱이 미국 기술이 중국 시장에 확산되면 '고착' 현상을 유발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확대할 수 있는데, 대표 사례로 중국 상용항공기공사 (CCCC)는 GE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개발한 미국산 엔진을 C919 항공기에 사용
- 마지막으로, 중국 진출은 미국 기업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, 중국의 기술 발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※ 브루킹스에서 발표된 잉이 마(Yingyi Ma) 사회학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, 국가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 배출 비중은 '22년 기준 중국 47%, 미국 18%

- **(권고사항)** 무조건 중국 철수를 압박하기보다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본국 회귀 또는 우방국 이전을 장려
 - 미국 첨단 기술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기술 리더십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
 - 다만 중국의 경쟁 환경은 공정하지 않고,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기업을 중국 토종 기업이 대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
 - 따라서 비(非)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어링을 꾸준히 장려하는 것이 중요
 - 또한 미국과 중국 기술 기업 간 ‘비대칭적인 경쟁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,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며, 중국의 우수 인재를 미국에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펼치는 등 정제된 정책적 개입도 필요

출처 :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(ITIF) (2026.5.4.)

<https://itif.org/publications/2026/05/04/us-technology-companies-should-keep-operating-in-china/>

<https://www.cryptopolitan.com/can-us-tech-profit-from-china-global-reach/>